

41년 근속과 정년퇴직,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손숙향 건강검진 코디네이터는 1982년 정읍아산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한 최장기 근속자다.

“신발 하나 사주고 싶은데...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줘서 고마워서 그래요.” 정읍아산병원을 방문한 한 노인이 원무팀을 찾아 이야기를 꺼냈다.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친절히 도와준 간호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 것이다. 해매기 쉬운 검진 순서를 살뜰히 챙겨준 간호사가 고마웠던 노인의 따스한 배려였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정읍아산병원 건강진단센터 손숙향 코디네이터. 그는 ‘건강검진 코디네이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노인의 다정한 마음만 고맙게 받았다.

노인 이용자를 돕는 건강검진 코디네이터

손숙향 코디네이터는 1982년 간호사로 입사해 41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현재 촉탁직으로 일하는 최장기 근속자다. “2022년에 건강진단센터로 이동했는데, 정년퇴직을 1년 앞둔 때라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요. 익숙한 업무를 하며 조용히 정년을 맞고 싶기도 했고, 그전에 없던 코디네이터 업무를 한다는 것도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호사로 일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제일 높고 적성에도 잘 맞는거 같아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 익숙하거든요.”

정읍아산병원은 2021년 건강진단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농협 조합원 건강증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건강검진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며 상당수를 차지하는 70세 이상 노인 이용자를 돕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해졌다. 노인 이용자들은 혼자 이동하며 검진실을 찾아다니기 힘들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을 돕는 것이 손숙향 코디네이터의 일이다. 오전에는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후에는 전화로 검진 결과를 설명하며 추후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진료를 받도록 돕는다.

“어르신들이 검진 접수를 하시면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것부터 도와드리고 순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동행합니다. 초음파 등 대기시간이 있는 검사는 우선 대기하도록 모셔다 드리고 그 시간에 다음 분을 안내해드리죠. 대기자가 많은 곳이 있으면 순서를 바꿔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오전에만 1만보 이상 걷는게 보통이에요. 많을 때는 27명까지 안내했는데, 그날은 2만보가 넘더라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

그렇게 1년을 최선을 다하자, 건강진단센터의 성장은 물론 관심도 높아졌다. 이용자들도 찢고구마, 알밤, 감말랭이 같은 간식 거리를 챙겨주며 새삼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3년 정년을 맞은 손숙향 코디네이터는 “이용자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 더 근무해주면 좋겠다”는 병원의 요청을 기쁘게 수락했다.

“어르신들은 정읍아산병원이 처음 문을 연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셔서 가끔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병원에 가려면 전주나 광주까지 나가야 했지만 정읍아산병원이 생겨서 혜택을 정말 많이 봤다고요. ‘정읍아산병원 고마운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을 할수록 우리 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첫 직장, 게다가 41년이란 긴 시간을 몸담은 직장이니 한 순간에 떠나기란 쉽지 않을 터다. 하지만 그는 “좋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있어 41년 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일해서 후회가 없다”고 말한다. “건강검진 코디네이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원내에서는 새로 생긴 업무라 불안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건강진단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리가 된 거 같아 자부심을 느낍니다.” 손숙향 코디네이터는 “퇴직하면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며 다시 자신의 일터인 건강진단센터로 돌아간다.  글 편집부



정읍아산병원 건강진단센터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손숙향 코디네이터.